

쏠 항공사 2분기 적자 사태...일본 태클에 하반기도 휘청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이어 LCC도 모두 2분기 '적자'

日 보이콧에 中 취항도 막혀...최대 성수기 3분기 부진 예상

올해 2분기 대형항공사(FSC), 저비용항공사(LCC) 모두 적자를 기록하며 실적 부진에 빠졌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화물 부문 부진과 원화약세가 지속된 결과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경기 둔화와 환율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업계 최대 성수기인 3분기에는 일본 여행 보이콧 운동과 중국 신규취항 규제 등 악재가 겹쳐 실적 회복이 쉽지 않아서다.

20일 국내 항공사 실적을 집계한 결과 대형항공사(FSC)는 물론 저비용항공사(LCC) 모두 적자 전환했다. 비상장사인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등도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분기 나란히 1000억원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대한항공 2분기 매출은 3조 2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했지만 영업손실이 1015억원 발생해 적자전환했다. 당기순손실도 3808억원을 기록했다. 아시아나항공도 2분

기 영업손실 1241억원이 발생했고, 당기순손실은 2024억원으로 적자폭이 커졌다.

양대 항공사 모두 화물 부문 부진,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화약세 지속 등 악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화물 부문에서는 미·중 무역분쟁에 따라 전 세계 물동량이 감소했고, 여기에 반도체 업황이 나빠지며 화물 부문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두 항공사는 화물 부문 실적 악화가 가시화되면서 향후 화물운송 서비스 구조조정 계획도 밝혔다. 대한항공은 10월 1일부터 국내선 청주·대구·광주공항의 화물판매와 운송, 티미널 운영을 중단한다. 아시아나항공도 대구·광주·청주공항 국내화물 운송을 중단할 예정이다.

원·달러 환율이 2년여 만에 1200원을 돌파하는 등 원화약세도 발목을 잡았다. 항공사들은 항공유, 항공기 리스 비용, 해외체류비 등을 모두 외화 결제해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환차손

이 발생한다.

이같은 상황은 LCC도 다르지 않다. LCC의 경우 공급 증가로 인한 경쟁심화, 여행수요 증가세 둔화 등 업황 부진과 환율 등 거시경제 변수 등이 두루 영향을 미쳤다.

제주항공은 2분기 274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5년만에 적자전환했다. 신규 노선 취항, 신규 항공기 등록 등 국토부 제재가 1년째 이어지고 있는 진에어의 영업손실은 266억원이다. 티웨이항공, 에어부산도 2분기 각각 265억원, 21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비상장사인 이스타항공과 에어서울 등도 모두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 3분기도 전망이 밝지는 않다. 이미 지난달부터 항공업계는 LCC를 중심으로 일본 여행 거부 움직임이 가시화되며 수요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 삼성증권 조사 결과 인천공항 기준 8월3주차 일본 노선 여객수는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한 22만9000명으로 나타났다. 성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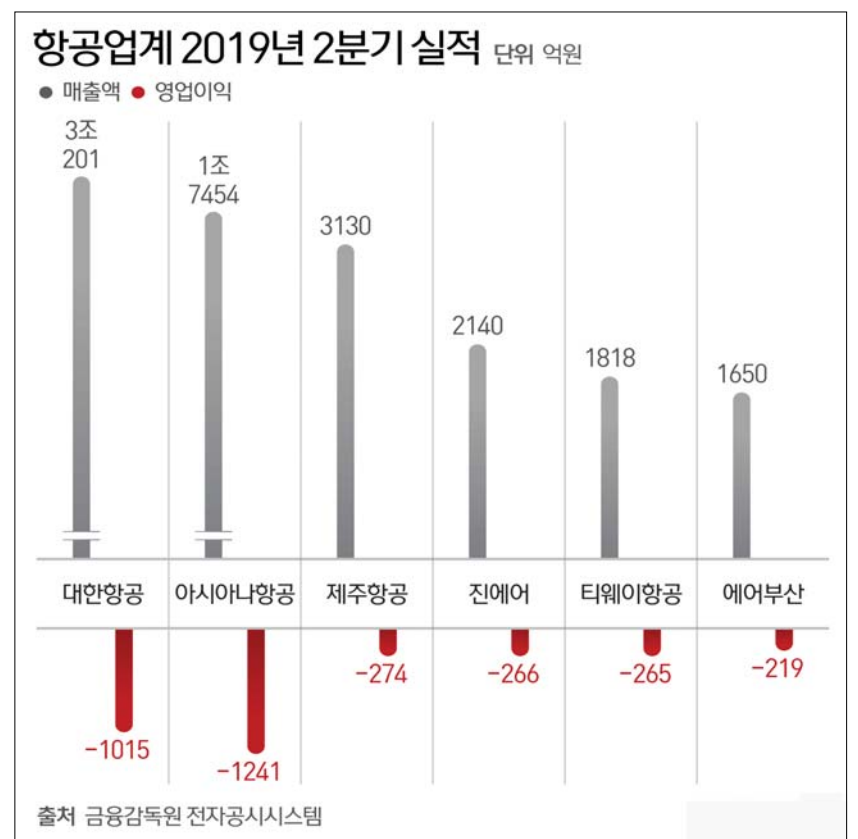
기입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이후 28주만에 역성장세로 돌아섰다.

일본 여객 수요가 출자 국내 항공사들도 일제히 일본 노선 운항 및 감편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8개 국적 항공사들이 공급축소를 결정한 일본 노선만 60개가 넘는다. 특히 일본 노선의 의존도가 높은 LCC들에게는 일본 여객 수요 감소 현상이 치명적이다.

여기에 일본 수요 대체재로 꼽힌 중국 노선도 막혔다.

중국 항공당국은 10월 10일까지 국내 항공사의 신규취항을 금지하기로 했다. 8-9월 잇따라 취항을 준비했던 중국 9개 노선이 운항을 취소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일단 10월까지 한시적 운항제한으로 알려져 있지만, 중국 정부가 명확히 사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은 만큼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다.

일각에서는 일본, 중국 등 대외변수 영향으로 인한 업황 부진이 그간 항공사들의 아웃바운드(내국인의 해외여행) 영업전략에 편향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LCC의 경우, 최근 5년간 엔저효과에 편승해 일본 노선 공급을 경쟁적으로 늘려온 바 있다. 비행거리가 비교적 짧고 취항도 자유로워 수요만 뒷받침된다면 수익성을 내기 쉬운 구조기 때문이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관광수지나 장기적인 항공업계 발전으로 보면 인바운드 전략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데 그동안 아웃바운드만 경쟁적으로 늘려왔다"며 "이번 기회에 LCC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인바운드 개발 쪽으로 영업전략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1

식품업계 "추석 대목 잡아라"...선물세트 '콘셉트·구성' 다양화



식품업계가 추석 대목을 맞아 선물세트를 일제히 선보였다. 올해 선물세트는 콘셉트와 구성이 한층 다양해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동원F&B는 트렌디한 디자인을 더한 동원참치, 리첼, 양반김으로 구성된 '동원 추석 선물세트' 200여종을 선보였다.

이번 선물세트는 신진 작가와 협업해 감각적이면서 젊고 트렌디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다채롭고 산뜻

한 색감을 활용해 일상속 행복의 밝고 따뜻한 모습을 삽화로 담았다. 또한 돼지고기 함량을 낮추고 소고기를 더한 '리첼 골드마블'을 처음 선보인다.

대표적인 선물세트는 실속 복합세트인 '동원투니리첼 100호'(동원참치 살코기 135g 12캔, 리첼 오리지널 200g 4캔)와 참치단독세트 '진호'(동원참치 살코기 150g 14캔, 고추참치 150g 4캔, 야채참치 150g 4캔, 김치찌개용참치 150g 4캔, 리첼 단독세트 리첼 3호(리첼 오리지널 200g 6캔, 리첼 오리지널 340g 6캔) 등이다.

고급세트인 '평풍환합 6호'(동원참치 살코기 150g 12캔, 리첼 오리지널 200g 8캔, 포도씨유참치 150g 12캔)와 김 세트인 '양반김 혼합 3호'(들기름김 8봉, 동원건강요리유 900ml 1봉)도 많이 판매되는 선물세트다.

동원 추석선물세트는 대형마트, SSM, 백화점, CVS 등 유통매장을 비롯해 동원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롯데푸드는 의성마늘, 한돈한우

등을 활용한 '로스팜' 캔햄 세트와 국내산 돼지고기로 만든 수제햄 '델리카테센' 세트 등 품질 좋은 우리 농축산물을 활용한 추석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로스팜 캔햄 세트에서는 지역 특산물을 사용한 '의성마늘 로스팜' 세트를 설 대비 약 30% 확대했다. 또 국산 한우와 한돈으로 만들어 2016년부터 인기리에 판매된 '로스팜 엔네이저 한돈한우' 세트도 준비했다.

국산 한돈의 안심, 등심 등 고급 부위육을 통째로 훈연 숙성해 만드는 수제햄 세트 '델리카테센'도 설 대비 10% 확대했다. 등갈비 부위로 만든 '바베큐 백립'을 추가한 델리카테센 세트도 새로 마련했다.

캔햄과 식용유 등 여러 종류의 제품을 담은 '혼합 세트'는 신규 구성품을 추가하며 품목을 다양화했다. 이번 추석에는 허말라야 핑크슬러, 다시마 천연조미료 등 최근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주방에서 활용도가 높은 구성품이 추가됐다. 스페셜티, 싱글오리진 등 프리미엄 원두로 구성된 원두커피 세트도 판매한다.

"다니엘 레드·연아 블루"...확 바뀐 갤럭시10, 130만명 '찜'

예약가입만 130만명 돌파...전작대비 2배 이상 높아



삼성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10'이 '확' 바뀌었다.

젊은 세대의 구미를 당길만한 강렬한 레드와 블루 및 다채로운 색상을 나타내는 '아우라 글로우' 색상을 채택하고 빅스비 버튼 등 각종 버튼을 과감하게 없애 극도의 '미니멀리즘'을 구현한 것.



덕분에 이동통신 3사가 진행한 갤럭시노트10 예약가입자가 130만명에 달했다. 사전개봉 행사장에도 10대부터 30대까지 젊은 세대가 몰렸다.

먼저 지난 19일 저녁부터 자정까지 서울 동대문구 노보텔엠베서더 루프탑에서 사전개봉 행사를 진행한 KT는 톱 아이돌 가수 '강다니엘'을 내세웠

다. 강다니엘이 강렬한 붉은색 정장을 입고 갤럭시노트10의 '아우라 레드' 모델을 소개하자 사전 신청으로 선정된 갤럭시노트10 예약가입자 100명은 환호성을 질렀다.

KT는 이번에 삼성전자와 계약을 맺고 갤럭시노트10 '아우라 레드' 모델을 전용으로 출시한다.

SK텔레콤은 고요하고 한가로운 올림피아공원을 '파랑계' 불렀다. 이 회사는 갤럭시노트10의 '아우라 블루' 모델을 전용 출시하는데, 20일 오전 김연아 선수, 배우 홍중현 등을 내세워 화려한 개봉축하 행사를 개최했다.

이같은 갤럭시마케팅의 영향으로 실제 예약가입자도 2030 젊은 세대가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 11일만 진행된 갤럭시노트10 국내 예약판매량이 17일 기준으로 100만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동3사 추산으로는 19일 저녁까지 13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전작 갤럭시노트9이 60만대를 웃도는 수준에서 예약판매가 마감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앞서 출시된 갤럭시S10 시리즈보다도 예약판매량이 더 많은 수준이다.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